

# “애포문화전당, 문화원 위탁·운영안 철회하라”

### 대통령소속 문화융성위, 광주서 토론회

### 지역문화계, 특별법 개정안 재검토 한목소리 촉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을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운영하는 법률 개정안은 철회해야 합니다.”

대통령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가 13일 광주문화재단에서 개최한 ‘문화융성 실현 및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지역의 문화계 인사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거슨 지역문화교류재단 상임이사는 토론회에서 “정부가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맡기고 문화전당에서 손을 떼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2015년으로 예정된 문화전당의 차질없는 개관과 안착이 매우 중요하며 전격적으로 입법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이사는 이어 “문화전당은 수익시설이 아닌 공공성이 강한 복합시설로 이를 법인에 위탁하면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우선시하게 돼 결국 문화전당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변질할 것”이라고 우

려했다. 민인철(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문화전당을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문화전당의 차질없는 개관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호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 위원장은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화전당의 법인화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걱정스럽다”며 “지역사회는 지역과 협의없이 법개정을 마련한 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아닌 자문기관의 장으로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모은다면 합리적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문화전당과 관련, 광주 지역사회와의 여론과 거리가 있는 발언을 해 아쉬움을 남겼



문화융성위원회는 13일 광주문화재단에서 ‘문화융성 실현 및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무용 전남대 교수, 송진희 호남대 교수 등 토론회자들이 지역문화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다. 그가 대통령에게 지역의 문화현안을 자문하는 문화융성위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문화전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아시아의 많은 공연전단체가 광주를 찾아야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구 150만 밖에 안 되는 도시에 대형 건물(문화전당)을 짓는 것이 애당초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화전당의 한해 운영비로만 4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립기관으로 안고 들어가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문화전당은 길게 보면 국립으로 가는 것보다 법인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예술의 전당도 정부기관이 아니라 법인으로 돼

있다”며 “기획공연을 많이 늘리느냐, 자체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 자립비율이 달라지지만 60~70%의 독립채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진희 호남대교수가 사회를 맡아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문화융성 실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세부담 기준선 5500만원으로 상향

###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안

정부는 13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稅)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담 기준선의 이 같은 상향조정은 정부의 최근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하 부양자들에게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6천만원과 7천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세 부담을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 /연합뉴스

## 세금이 안걸린다

### 상반기 세수 9조4천억 감소... 3년만에 최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같은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연간 세수 감소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를 보면,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1조5938억원)보다 9.3%(9조4061억원) 덜 걷혔다.

명목(경상)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11년 상반기 95조9092억원, 2012년 상반기 101조5938억원에 견줘 가장 적은 수치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부가세에서 두드러졌다. 6월 말까지 전년 대비 법인세 부족분은 4조1883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6.3%나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자갑을 닫으면서 부가세도 2조2374억원(-8.0%) 감소했다. 두 세목의 세수 부족이 총 감소액의 68.3%를 차지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적 부

진 이 법인세를 인하와 경기약화 탓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2년(28%→27%), 2005년(27%→25%), 2009년(25%→22%) 차례로 낮아졌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12월 결산법인의 세전 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를 보면,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1조5938억원)보다 9.3%(9조4061억원) 덜 걷혔다.

2009년에도 상반기 진도율이 50%를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측면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가 닥친 셈이다.

안민석 의원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공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대표 브랜드인 일감몰아주기 과제 기준을 강화하고 부자감세 정상화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력 수요관리비용 사흘간 120억

### 12일에만 41억원... 국민·기업 부담 전력산업기반기금서 총당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된 12일 정부가 전력 수요관리에 쓴 비용이 40억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위기가 이어질 14일까지 사흘간을 따지면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3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전날 지출한 금액이 4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분별로 보면 사전에 약정한 기업체의 작업 시간을 조정해 부하를 줄이는 ‘주간예고’(감축량 91만kW)에 18억원, 민간 자가발전기 가동(49만

kW)에 14억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에 더해 산업계 휴가 분산으로 전력 소비를 줄이는 ‘지정기간’(152만kW)에 6억6000만원, 수요입찰·지능형 수요조정(18만kW)에 2억8000만원을 썼다.

산술적으로는 올여름 전력난의 최대 고비인 12~14일 사흘간 120억원 가량이 수요 관리 지원금으로 쓰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비용은 모두 전력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총당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3.7%를 징수해 조성되는 것으로 결국 국민과 기업이 부담한 돈이다.



전기세 인상과 함께 전력소비량이 폭증하며 매년 큰 폭으로 증액돼 왔으며, 올해의 경우 운용 규모는 총 2조5677억원에 달한다.

가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전력 위기를 벗어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며 “올여름 공급력을 추가 확보하기는 힘든 만큼 수요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한국인 사망자 원인조사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우리나라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다는 의혹(광주일보 13일자 5면)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양평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3일 언론 설명회를 열어 “외국인과 함께 살았던 사우디에서 사망한 국내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망한 근로자의 명확한 사인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 사망자와 접촉한 근로자의 국내 입국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이미 입국한 3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관찰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음압 병상(내부 압력을 낮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에 입원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연수일정(2013년 제11기)

- 개강일시: 2013. 9. 2(월) 기초오전 14:00 기초야간 18:30 심화오전 14:00 심화야간 18:3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3. 8. 1(목) ~ 2013. 8. 31(토)
- 수업기간: 2013. 9. 2(월) ~ 2013. 12. 20(금) (총 90시간)
- 수강료: ₩360,000
- 모집인원: 기초오후반: 30명 기초야간반: 30명 심화오후반: 30명 심화야간반: 30명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금호지점 | 팀장 010-4948-2882  
 풍암지점 | 팀장 010-3642-6142  
 공동본점 | 팀장 010-3603-7981

### 2013년 2학기 漢字·漢文指導師資格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공인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7기)	광주교육대학교(8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 9. 6(금) 09:10 (토) 09:10 토요일 오전반: 2013. 9. 7(토) 09:10 (토) 09:10	월, 목 야간반: 2013. 9. 2(월) 19:00 (토) 19:00 목요일 오전반: 2013. 9. 5(목) 09:10 (토) 09:10 토요일 오후반: 2013. 9. 7(토) 14:10 (토) 14:10
모집기간	2013. 7. 25(목) ~ 9. 7(토)	2013. 7. 25(목) ~ 9. 7(토)
수업기간	2013. 9. 6(금)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 9. 2(월)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 총점 평균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한자교육 전문지도사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전문학원 겸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교과서 후 고교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육(1급-3급) 취득 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 총점 평균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한자교육 전문지도사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전문학원 겸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교과서 후 고교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육(1급-3급) 취득 기회 부여
문의	문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문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 교육사업에 동참하실 분 찾습니다.

주)쓰리엘은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을 바꿔나갈 활력있고 능력있는 사원을 모십니다.

팀장 00명  
강사 0명

교육사업에 열정 있으신 분

교육 콘텐츠 사업

유치부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교육, 생각하는 논술 영어회화, 영문법, 중국어, 씨스스
초등부	영재수학(9권), 논술(초·중·고급)
중등부	영어회화, 영문법, 사회
고등부	1,2,3 영문법, 영어회화 논술고급, 사회

wawapen 태블릿PC

주)교육사업 쓰리엘 광주지사  
062)234-5356 / 010-9535-5333